



최근 세계경제의 블록化 추이 및 건설시장 환경의 변화

자료제공 : 해외건설협회

[1] 세계경제의 블록化 추이

가) 경제 블록化의 추이

지역적 경제통합은 2차대전 이후 전후 부흥을 위한 유럽제국간의 상호협력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그후 개도국간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80년대 들어 GATT 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과 냉전체제붕괴후의 경제력 대결의 강화 등으로 기존 통합체는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NAFTA와 같은 대규모의 새로운 통합체가 결성되었다.

나) 경제 블록化의 형태

경제통합의 5단계

대부분 경제통합체의 경우 초기에는 역내 구간 경제협력 강화 및 관세를 철폐하는 단순한 형태로 시작하나 점차 결합의 정도를 강화

연대별 경제통합 추이

연 대		50년대 이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93년
경제 수준별	선진국간	4	4	6	3	3
	개도국간	-	14	9	4	5
지역별	유럽	4	2	8	-	2
	북미	-	-	-	1	1
	중남미	-	4	1	1	3
지역별	아시아	-	3	-	-	2
	중동	-	2	1	2	-
	아프리카	-	6	5	2	-
합 계	4	18	15	7	8	

주 : 통합체수는 창설기준임(일부는 다른 기구와 통합된 것도 있음.)

자료:심의석, 『아프리카 경제론』 (명지출판사, 1990)

EUROPA,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1993』

EURIPA, 『South America, Central America and Caribbean, 1993』



해 나가고 있으며, 통합의 정도와 진행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①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자유무역지역이란 통합에 참가한 각 가맹국 상호간에는 상품 이동에 대한 일체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위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즉 가맹국 상호간에는 상품의 자유이동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역외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이 더 발전하여 역내 제국간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고 있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즉 가맹국 상호간에는 재화 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공동의 관세제도를 채택한다.

④ 경제동맹(economic union)

경제동맹은 공동시장을 더욱 발전시킨 형태로써 역내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역외공동관세를 부과하는 외에도 각 가맹국간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경제정책을 실시하는 형태의 통합이다.

⑤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완전경제통합은 가맹국 상호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각 가맹국의 모든 사회·경제정책을 조정, 통합, 관리하는 형태의 통합이다. 경제통합의 형태중 가장 완벽한 형태의 통합유형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위시한 공동의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고유의 경제적 주권이 초국가적인

기구로 이양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통합의 기반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 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지역 (NAFTA/EFTA)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공동시장 (EEC ² , CACM, CCM, ANCOM 등)				
경제동맹 (EC)				
완전경제통합 (EU: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C)				

주 1) 1994년 9월 베네룩스 3국간 관세협정에 의거 창설되었다. 그 후 1958.2월 베네룩스 경제동맹으로 발전하였으나 1967년 EC의 설립으로 이에 흡수되었다.

2) 1957.3월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1958.1.1)되었으며, 1967년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통합하여 EC로 발전하였다.

다) 경제 블록化의 현황

(1) 현재 30여개의 통합체 형성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경제통합체는 그동안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그 수가 30여개에 가맹국 수는 120여개국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일본, 대만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이미 한 개 이상의 통합체에 소속되어 있다.

(2) 유럽 및 북미, 대륙 전체가 하나의 통합체로 결속

통합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합체는 결속력을 더욱 강화(자유무역지역→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 등으로 발전)하는 한편, 주변국가를 흡수 통합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대륙의 경우는 이미 대륙 전체가 하나의 통합체를 이루고 있다.

(3) 종래 수평적 통합에서 최근에는 수직적 결합으로 확산

경제통합은 그동안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한

2차대전 이후 전후 부흥을 위한 유럽 제국간의 상호협력과정에서 시작된 지역적 경제통합은 현재 그 수가 30여개에 가맹국 수는 120여개국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혼재된 상태의 수직적 경제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선진국간이나 또는 개도국간의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같은 블록 안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혼재된 상태의 수직적 경제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이다. 이같은 추세는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해 통합이 지연되어온 지역의 통합을 고무시킴으로써 지역별 경제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 세계건설시장 환경의 변화

가) UR협상 타결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

(1) 민간건설시장

일반건설업은 95년부터 외국건설업체의 100% 단독투자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전문건설업은 98년1월부터 지사 설립이 허용된다.

국내 건설시장 개방일정(민간)

분야	개방방법 및 시기	조건
일반 건설업 (토목, 건축)	(a) 100% 단독투자허용:95.1 (b) 지사설립:96.1	a) 면허는 3년마다 발급 b) 단일계약의 도급한도제 적용 c) 일괄 하도급 제한 및 하도급 의무 부과
전문건설업	(a) 100% 단독투자허용:96.1 (b) 지사설립허용:98.1	
건축 설계업	96년부터 한국건축사 공동 계약에 의한 건축 설계 서비스 공급 허용	(a) 한국건축사업, 등록 필요 (b) 한국건축사 자격 취득 요건 완화

(2) 공공건설시장

-개방시기 : 97.1.1

-개방범위 : ㉠ 중앙정부 500만 SDR(약 53 억원) 이상

㉡ 지방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1,500만 SDR(약 160억원) 이상
㉢ 공공건설시장 개방 규모는 최소 25%(2조 2,600억원)에서 40%(6조 400억원) 이내

국내 건설시장 개방일정(공공)

구분	개방기관	개방하한선
중앙정부	건설 공사	42개 기관 500만 SDR(약 53억원) 이상
	건축 설계 서비스	42개 기관 13만 SDR(1억 5천만원) 이상
지방정부	건설 공사	서울시, 5개 직할시, 9개도 1,500만 SDR(160억원) 이상
	건축 설계 서비스	서울시, 5개 직할시, 9개도 20만 SDR(2억 2천만원) 이상
공공기관	건설 공사	24개 정부투자기관 1,500만 SDR(160억원) 이상

나) 東北亞의 새로운 질서 構築

1) 한-중 수교, 한-러시아간의 수교후 유대강화로 새로운 건설시장 전개

㉠ 중국 건설시장규모:93. 기준 약 2천억 달러 추정(매년 20%씩 증가)

㉡ 극동 러시아의 자원개발과 연계된 건설공사 창출

2) UNDP 후원으로 두만강 개발사업 추진중

3) 東北亞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

㉠ EC, NAFTA의 결성으로 경제블록화 심화에 따른 한·중·일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블록 형성 가능성



- ⑤ 결성될 시 건설업의 상호 자유진출 가능성
- 4) 남-북한 공동개발 프로젝트 추진
 - ② 금강산 개발, 자유시 건설, 북한의 공업 단지 건설 등 남북경제협력차원의 추진
 - ③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일본, 미국과 협력 추진

[3] 세계건설시장의 규모와 해외 개방도

가) 세계건설시장 규모

세계건설시장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건설투자액기준으로 93년 현재 2조 7,785억 달러이고, 일본의 건설시장이 6,614억 달러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며 미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건설시장이다. 유럽건설시장도 EU(유럽연합)출범 등의 영향으로 대폭 신장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 건설시장의 규모가 세계 전체의 60~70% 수준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은 3,144억 달러로 전체의 11.3%이며, 개도권 지역은 5,959억달러로 세계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지역별 건설투자 규모

연도 지역	90	91	92	93
北 美 (미 국)	5,247 (4,487)	5,205 (4,483)	5,597 (4,837)	5,908 (5,108)
유 럽 (東 歐)	9,175 (2,128)	9,050 (1,905)	9,127 (1,796)	9,303 (1,775)
아 시 아 (일 본)	7,995 (5,711)	8,388 (5,843)	8,993 (6,158)	9,758 (6,614)
중 동	839	831	911	955
아프리카	498	523	539	564
中 南 美	972	1,042	1,149	1,296
합 계	24,727	25,080	26,317	27,785

자료: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1994
UN, Construction Statistics Yearbook, 1994

세계 시장의 해외발주 규모는 92년 현재 1,465억 달러로 아시아 지역은 아세안 6개국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 확대에 힘입어 해외발주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유럽지역도 EU(유럽 연합) 출범 등에 따른 역내 건설교역 활발로 발주 규모가 확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동지역은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발주가 감소될 것으로 본다.

나) 해외 개방도

UR타결 등에 따른 세계 건설시장의 여건 변화로 해외발주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UR협상 타결로 건설시장의 상호개방 확대로 발주규모 급증이 예상되며 개도국의 발주규모도 93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해외발주규모가 95년에는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해외발주 추이

연도 지역	1985	1988	1990	1991	1992
北 美 (미 국)	102 (73)	192 (127)	217 (153)	190 (124)	132 (90)
유 럽	100	194	305	328	344
아 시 아	178	205	271	345	426
중 동	216	174	199	293	281
아프리카	153	101	152	217	145
中 南 美	66	75	58	147	137
합 계	816	941	1,203	1,520	1,465

자료: ENR지 각호, (1985~1993)

세계 건설시장의 대외개방도는 각 지역별 해외건설 발주액을 건설투자액으로 나누어 보면 알 수 있다.

선진국의 건설시장 개방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과 북미지역의 개방도는 4% 미만으로 매우 폐쇄적인 건설시장이며, 미국의 개방도는 92년 현재 1.9%로 최저 수



준이다. 일본의 경우는 해외 발주가 거의 없는 관계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건설시장이다.(2% 미만으로 추정)

그러나 개도권 지역은 대외 개방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동 건설시장의 개방도가 30% 내외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개방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북아프리카의 산유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인,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개방도도 높게 나타났다.

개방도의 수치는 전체 해외 발주액이 아닌 세계 250대 상위 건설회사를 대상으로한 해외건설 발주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절대치보다는 상대치의 의미가 있다.

지역별 건설시장의 개방도

연도 지역	1985	1998	1990	1991	1992
北 美 (미 국)	2.3 (1.8)	3.7 (2.9)	4.1 (3.4)	3.7 (2.8)	2.4 (1.9)
유 럽	3.1	3.0	4.3	3.6	3.8
아 시 아	5.4	3.0	3.5	4.1	4.7
중 동	30.8	22.5	23.7	35.3	30.8
아프리카	37.9	21.5	30.5	41.5	26.9
中 南 美	9.0	7.3	6.0	14.1	26.9
세계전체	6.3	4.6	5.4	6.7	5.6

다) 我國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1) 수주구조 분석

93년말 현재 해외건설 진출 이래 67개국에서 총 1,043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했다.

81년 137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하였고, 88년에는 16억 달러로 최저를 기록했지만 89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93년에는 32개사 33개국에서 51억2천만달러 수주하였으며 94년은 84년 수주인 60억 달러대를 예상하고 있다.

지역별 수주로는 중동 일변도에서 탈피해 동남아가 주시장으로 부상하면서 북방, 동아시아 등 신시장 개척으로 시장이 다변화되었다.

한국 건설기업의 지역별 해외수주 분포 현황

연 도	중 동	동남아	기 타
65~88	88.7	9.7	1.6
89	59.8	31.8	6.8
90	55.2	33.3	6.5
91	28.6	62.1	8.1
92	20.4	76.1	3.5
93	35.4	50.4	14.2

공종별로는 88년까지는 건축 비중이 높았으며 이후 토목 비중이 증가해 89년 이후 플랜트(석유화학, 발전소) 수주가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 건설기업의 공종별 해외수주 분포 현황

연 도	토 목	건 축	플랜트
65~88	88.7	9.7	1.6
89	59.8	31.8	6.8
90	55.2	33.3	6.5
91	28.6	62.1	8.1
92	20.4	76.1	3.5
93	35.4	50.4	14.2

발주 형태별로 보면 지명경쟁으로 수주에 성공한 경우가 50%로 절대적이며 발주처와 유대관계 및 지명도가 수주의 관건이다.

한국 건설기업의 발주형태별 해외수주 분포 현황

발주형태	81~90	91	92	93
공개경쟁	20.6	6.6	8.6	10.4
지명경쟁	52.3	35.6	69.6	55.2
수의시달	27.1	57.8	21.8	34.3